

축사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인스님들의 학구열과 수행의 향기를 담아 해마다 펴내고 있는 『僧伽』 27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로 개교 32 주년을 맞는 중앙승가대학교의 교지인 『僧伽』는 30년에 가까운 연륜을 쌓으며 학인 스님들의 치열한 학구열과 불교 중흥을 위한 고민을 담아내는 학술문화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종단의 명운을 좌우하는 승가교육의 요람인 중앙승가대학교에서 『僧伽』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승가(僧伽)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인도말 상가(Sanga)를 음차(音借)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문표기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승(僧)이라는 말은 일찍이 증(僧)자에 사람 인(亻)변을 붙인 것이고, 가(伽)라는 말 또한 더할 가(加)자에 사람 인(亻)변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말을 발음대로 표기하는 가운데에도 승가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즉, 일찍이 사람이 된 사람이 승(僧)이며 여기에 사람을 더한 것이 가(伽)이니 승가의 지향은 바로 사람이며, 인본주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도말을 한문으로 옮기는 가운데에서도 불교가 가진 사상과 철학을 빠짐없이 담으려 했던 옛 선조들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합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승가에서 그 화합의 근원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僧伽』는 이와 같은 선조들의 깊은 고민과 성찰을 잘 계승하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가 지향해야 할 앞날을 잘 담아야 합니다. 흔히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불교의 백년을 좌우하는 승가교육의 요람에서 『僧伽』는 학인스님들이 불교의 중흥과 미래를 위해 탐마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불교는 변화와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흥성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변화하여야 합니다. 그 변화의 걸음이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정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입니다.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라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우리 스스로 자정과 쇄신을 이루어 냄으로써 불교는 물론 한국 사회의 변화와 쇄신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초발심 확인에서 원로 대덕에 이르기까지 우리 종단의 모든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僧伽』가 우리 종도들에게 이러한 책무와 역할을 일깨우는

향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화엄경에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한 그때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정과 쇄신을 위한 결사를 시작하는 지금이 초발심의 자리이고, 학인의 자리 또한 초발심의 순수함을 간직한 자리입니다. 『僧伽』가 언제나 초발심의 마음을 잊지 않는 학인들의 아름다운 탁마의 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僧伽』 27호의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법인승가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